

# 한일합섬, 합성섬유 생산 전면중단

마산공장 8만5000명 매각 완료 ... 해외공장은 가동·확장 계속키로

40년간 합성섬유를 생산해온 경남 마산의 향토기업 한일합섬이 해외공장을 제외한 국내에서의 합성섬유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법정관리중인 한일합섬은 연말까지 마산공장 대지 8만9500평을 태영 및 한림건설 컨소시엄에 명도하기에 앞서 9월말이나 10월초 신사업 부문을 결정하고, 11월부터 합성섬유 생산라인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8월29일 발표했다.

한일합섬은 마산공장의 아크릴원면 사업이 환율과 유가, 원자재 등 3가지 악재로 적자가 누적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국내사업 인수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도입 등을 통한 신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마산공장 철거와 대지 명도와 함께 별도 보유중인 800여평에 건물을 신축해 본사는 마산에 계속 두기로 했으며, 신사업에 따른 공장 위치는 사업확정 후 논의할 방침이다.

한일합섬은 국내공장으로 마산 외에도 대구 스피본드(부직포) 공장과 의령 방적공장 등을 가동해왔으나 의령공장은 최근 생산을 중단했다.

해외공장은 온두라스 봉제공장과 인디아 및 중국 원사공장 등을 가동하거나 확장하고 있다.

현재 마산공장에는 종업원 230여명이 있으며 가동중단에 앞서 명예퇴직과 신사업 추진시 우선채용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8/31>